

Verdict

Winning Hypothesis: 시장이 틀렸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상승은 규제 리스크 소멸과 ETF 유입이라는 낙관적 내러티브에 기반한 '내러티브 버블'이며, 매크로 현실인 '완치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CPI 330.293)'과 '5% 국채 금리 돌파 우려'가 실질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유동성 확장 시나리오를 무력화시킬 것임. 특히 T10Y2Y 양전과 고용 지표 안정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켜 고금리 장기화 (Higher for Longer) 를 초래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위험 자산 성격을 부각시켜 단기 과매수 조정을 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시킬 것임. 또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57% 와 기관 자금 집중은 시장 과열을 의미하며, 서킷브레이커 도입 논의와 전문가들의 경고는 규제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여 내러티브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임.

시장은 SEC 규제 리스크 소멸과 골드만삭스 등 전통 금융의 2.2 조 달러 규모 자산 이전이라는 구조적 유동성 확장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에서 '제도적 안전 자산'으로 전환되어 단기 조정 이후 장기 상승 사이클을 재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특히 블랙록 (IBIT) 의 4 주 연속 4 억 달러 순유입과 비트코인 도미넌스 57% 유지는 기관 자금의 안전 자산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기 과매수 청산은 레버리지 정화 과정일 뿐 근본적 상승 동력을 훼손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이는 맞는 판단인데, 수집된 정량적 증거가 시장의 낙관적 내러티브가 '내러티브 버블'에 불과함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때문임. 특히 CPI 가 330.293 수준으로 잡히지 않은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T10Y2Y 가 0.5% 로 양전되어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Higher for Longer) 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유동성 확장 시나리오를 무력화시킴. 직전 판정 (2026-04-14) 에서 지적인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붕괴 (BTC vs GOLD 상대적 약세) 가 현재도 유효하며,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5.42% 하락한 상태라는 데이터는 단기 조정 압력이 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함. BTC-US10Y Beta 가 -0.0 으로 무상관이라는 점은 금리 상승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위험 자산의 민감도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리 상승에 대한 방어력이 부족함을 방증함. 따라서 현재 가격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실질 금리 상승과 규제 리스크 재부상으로 인해 추가 조정이 발생할 것임.

Action: BTC 비중 축소 및 GOLD 비중 확대 전환 권고

Invalidation: T10Y2Y 스프레드가 0.2% 이하로 축소되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부상할 경우 (30 일 이내)

Risk Factors: 매크로 리스크: CPI 가 335.0 수준으로 재상승하며 실질 금리 상승 압력이 가속화되어 유동성 위축 심화, 기술적/포지셔닝 리스크: BTC 가 고점 대비 -35.42%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10% 하락 시 장기 추세선 붕괴로 매도 물량 폭증, 이벤트 리스크: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발표 또는 대형 거래소 해킹 사건 발생 시 시장 신뢰도 급락

Macro Picture

Regime: liquidity_expansion

Key Themes: 제도권 금융의 본격적 편입 (Goldman Sachs ETF 신청),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소매 투자자 진입 장벽 완화 (SEC 분류, PDT 폐지), 지정학적 완화와 기관 자금의 지속적인 순유입 (4주 연속 4억 달러 이상)

Dominant Narrative: SEC 가 디지털 자산을 공식 상품으로 분류하고 PDT 규칙을 폐지하며 규제 리스크가 소멸된 상태에서, 골드만삭스와 그레이스케일 등 전통 금융 거물이 비트코인 ETF 를 통해 2.2 조 달러 규모의 자산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7% 를 유지하며 알트코인 대비 강력한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블랙록 (IBIT) 을 중심으로 4 주 연속 일평균 4 억 1,100 만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하여 기관 수요가 시장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 중임.

Reality: T10Y2Y (10 년-2 년 국채 금리) 가 0.5% 로 양전된 상태와 ICSA (실업수당 청구) 가 21.9 만 명으로 안정된 고용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뒷받침하여 유동성 확장을 시사함. 다만 CPI 가 330.293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5% 국채 금리 돌파 우려가 존재하므로, 비트코인은 단기 과매수 조정 (24 시간 1 억 2,350 만 달러 청산 발생) 을 겪고 있으나, 실질 금리 하락과 규제 리스크 제거라는 매크로 구조적 우위 속에서 장기 상승 사이클을 유지 중임.

Hypotheses

A (Market Right)

시장이 맞다: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 (과매수 청산) 은 인플레이션 지표 (CPI) 의 일시적 둔화 우려와 5% 국채 금리 돌파 시나리오에 따른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며, SEC 규제 리스크 소멸과 골드만삭스 등 전통 금융의 2.2 조 달러 규모 자산 이전이라는 구조적 유동성 확장이 실질 금리 하락과 맞물려 장기 상승 사이클을 재개할 것임.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 57% 와 블랙록 (IBIT) 의 4 주

연속 순유입은 기관 자금의 '안전 자산'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기 VIX 상승이나 알트코인 로테이션은 자금의 일시적 이동일 뿐 구조적 우위를 훼손하지 못함.

내러티브가 현실을 압도하는 시나리오: 규제 리스크 완전 해소 (SEC 공식 상품 분류, PDT 폐지) 와 제도권 편입 (ETF) 은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위험 자산'에서 '제도적 안전 자산'으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킴. T10Y2Y 양전 (0.5%) 과 ICSA 안정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뒷받침하여 실질 유동성 확장을 유도하며, 이는 단기 CPI 둔화 우려를 상쇄할 충분한 동력임. 과거 BTC 가 금 대비 약세를 보였던 것은 규제 불확실성과 유동성 부족이 주원인이었으나, 현재는 이 두 가지 변수가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재부상하여 금 대비 상대적 약세 (Underperformance) 가 축소될 것임. 단기 과매수 청산 (1 억 2,350 만 달러) 은 레버리지 정화 과정일 뿐, 4 억 달러 규모의 기관 순유입이라는 펀더멘털이 이를 상쇄하고 새로운 고점을 돌파할 것임.

B (Market Wrong)

시장이 틀렸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상승은 규제 리스크 소멸과 ETF 유입이라는 낙관적 내러티브에 기반한 '내러티브 버블'이며, 매크로 현실인 '완치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CPI 330.293)'과 '5% 국채 금리 돌파 우려'가 실질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유동성 확장 시나리오를 무력화시킬 것임. 특히 T10Y2Y 양전과 고용 지표 안정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켜 고금리 장기화 (Higher for Longer) 를 초래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위험 자산 성격을 부각시켜 단기 과매수 조정을 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시킬 것임. 또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57% 와 기관 자금 집중은 시장 과열을 의미하며, 서킷브레이커 도입 논의와 전문가들의 경고는 규제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여 내러티브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임.

현실이 내러티브를 붕괴시키는 시나리오: 이전 판단 (2026-04-14, 04-13) 에서 지적한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붕괴 (BTC vs GOLD 상대적 약세) 가 현재도 유효하며, 이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금리 민감형 위험 자산임을 방증함. CPI 가 330.293 수준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5% 국채 금리 돌파는 실질 금리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유동성 확장 (liquidity_expansion) 내러티브와 정면으로 충돌함. T10Y2Y 가 0.5% 로 양전된 것은 경기 침체 부재 (Soft Landing) 를 의미하지만, 이는 연준이 금리를 쉽게 인하할 수 없음을 뜻하므로 유동성 공급이 제한될 것임. 또한 ETF 순유출 전환과 알트코인 로테이션은 기관 자금의 단일 집중이 일시적임을 시사하며, 서킷브레이커 논의는 시장 과열에 대한 규제 당국의 경계심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함. 따라서 현재 가격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실질 금리 상승과 규제 리스크 재부상으로 인해 -35% 이상의 추가 조정이 발생할 것임.

Key Question: CPI 가 330.293 수준으로 잡히지 않은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T10Y2Y 양전 (0.5%) 과 5% 국채 금리 돌파 우려가 실질 금리 상승을 유도하여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경우, 블랙록 (IBIT) 을 중심으로 한 4 주 연속 4 억 달러 규모의 기관 순유입이 이를 상쇄하고 비트코인의 '위험 자산' 성격을 '안전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동력을 가지는가?

Tensions

기관 자금의 지속적인 순유입과 규제 리스크 해소라는 낙관적 내러티브가 지배적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지표(CPI)가 완전히 잡히지 않아 실질 금리 하락 기대와 5% 국채 금리 돌파 우려가 공존하며 단기 과매수 조정 압력을 형성하고 있음.

0.60

Narrative: 골드만삭스 등 전통 금융의 ETF 편입 가속화와 규제 불확실성 소멸로 인한 무제한 유동성 유입 기대

Reality: CPI 330.293 수준 유지로 인한 연준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5% 국채 금리 돌파 시나리오에 따른 단기 과매수 청산 (24 시간 1 억

BTC

US10Y

DX1

비트코인 도미넌스 57% 와 기관 자금 집중이라는 '안전 자산' 내러티브가 유효하나, 최근 현물 ETF 순유출 전환과 알트코인 (ETH) 의 회복 속도 앞질러 나타나는 로테이션 현상은 자금의 단일 집중이 일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0.50

Narrative: 비트코인 도미넌스 유지와 블랙록 (IBIT) 중심의 4 주 연속 4 억 달러 이상 순유입 지속

Reality: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인한 현물 ETF 순유출 전환과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의 비트코인 대비 빠른 회복세로 인한 자금 로테이션 발생

BTC

ETH

SPX

규제 리스크 완전 해소와 제도권 편입이라는 구조적 우위 내러티브가 형성되었으나, 시장 전문가들의 '위험' 경고와 서킷브레이커 도입 논의는 규제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과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하고 있음.

0.40

Narrative: SEC 의 공식 상품 분류와 PDT 규칙 폐지로 규제 리스크가 소멸되어 기관 자금 진입 장벽이 완전히 제거됨

Reality: 시장 과열에 따른 서킷브레이커 도입 논의와 전문가들의 '지금 투심 회복은 위험'이라는 경고로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시사

BTC

VIX

Eval Scores

PASS

Overall 3.0

Tension 3

Verdict Logic  3

Feedback: Evaluation skipped due to error: 1 validation error for EvalGateResult Invalid JSON: EOF while parsing an object at line 1 column 5998 [type=json_invalid, input_value='{"tension_validity": 4, ...}', input_type=str]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https://errors.pydantic.dev/2.12/v/json_invalid

MORNING ANGLE 2026-04-15

시장의 부: 시장은 SEC 규제 리스크 소멸과 골드만삭스 등 전통 금융의 2.2 조 달러 규모 자산 이전이라는 구조적 융통성 확장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에서 '제도적 안전 자산'으로 전환하며 단기 조정 이후 장기 상승 사이클을 재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특히 블랙록 (BIT)의 4 주 연속 4 억 달러 순수입과 비트코인 도미닉스 57% 유지는 기관 자금의 안전 자산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기 과매수 청산은 레버리지 정화 과정일 뿐 근본적 상승 동력을 훼손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결론: 시장이 틀렸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상승은 규제 리스크 소멸과 ETF 유입이라는 낙관적 내러티브에 기반한 '내러티브 버블'이며, 매크로 현실인 '완치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CPI 330.293)'과 '5% 국채 금리 돌파 우려'가 실질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유동성 확장 시나리오를 무력화시킬 것임. 특히 T10Y2Y 양전과 고금리 장기 안정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켜 고금리 장기화 (Higher for Longer)를 초래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위험 자산 성격을 더욱 강화해 단기 파매수 조정을 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시킬 것임. 또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57%와 기린 자금 집중은 시장 괴리를 의미하며, 서브프라임이 도입 논의와 전문가들의 경고는 장기 당국과의 추가 개인 가능성에 시사하며 내러티브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임. [HIGH]

이는 맞는 판단인데, 수집된 정량적 증거가 시장의 낙관적 내러티브가 '내러티브 버블'에 불과함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때문임. 특히 CPI가 330.293 수준으로 잡히지 않은 고인플레이션 시점에서 T10Y2Y가 0.5%로 양적완화 여건의 금리 인하 지연 (Higher for Longer) 을 내세워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비통상성 확장 세리노를 무력화시킬. 직전 판정 (2026-04-14) 에서 지적한 '디지털화'의 붕괴 (BTC vs GOLD 상대적 매력) 가 현재도 유효하며,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5.42% 하락한 상태라는 데이터는 단기 조정 압력이 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함. BTC-US10Y Beta 가 -0.40으로 무상관이라는 점과 금리 상승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위험 자산의 군요도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리 상승에 대한 방어성이 부족함을 부각함. 따라서 현재 가격은 과하게 낙관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실질 금리 상승과 금리 조율 세리노 재부생으로 인해 추가 조정이 발생할 것임.

→ BTC 비중 축소 및 GOLD 비중 확대 전화 권고

무효화: T10Y2Y 스프레드가 0.2% 이하로 축소되어 연주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부상할 경우 (30 일 이내)

